

제11회 『사회연구 학술상』 장려상 수상논문

하버마스의 막스 베버 합리성에 대한 오해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류성희

이 연구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이해가 총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하버마스는 베버 합리성을 1) 목적합리적 이해 2) 진화론적 이해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되는 베버이해의 단순성은 하버마스가 가진 영향력만큼이나 베버이해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준다. 더구나 하버마스는 현대 이론가 가운데 국내 사회학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하버마스의 논의는 보다 철저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베버 합리성이 하버마스의 주장처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거나 혹은 특정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다음, 이후 베버 합리성을 해명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 결과로서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이해에서 ‘목적합리적 이해’는 베버가 해명한 수많은 ‘합리성의 다차원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도출시킬 수 있었다. 또한 베버가 서구우월의 합리적 방식을 해명하는 것이 그의 합리성 연구목적이 아니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전 저작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학에 크게 공헌을 한 바 있는 하버마스를 비판한 것에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공감한다. 그럼에도 굳이 이 연구의 의의를 해명하자면 외국 이론가들의 논의를 단순히 따라 읽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국내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이론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하버마스와 베버의 이론을 보다 세심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예비적 조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도구적 합리성, 진화론, 막스 베버, 이념형, 의사소통적 행위이론

류성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턴연구원. hanngl@naver.com

감사의 말 :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신 원재연 선생님, 막스 베버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성우 선생님, 박승길 선생님, 윤병철 선생님, 무엇보다 공부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많은 도움을 주신 정일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이 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학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현대이론학자는 누구인가? 정답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이다. 현대 이론학자 가운데 하버마스야말로 해방 이후 지난 50년 동안 국내 사회학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자이다(양종희 · 이윤희, 1995: 75-76). 이는 분명 양적차원(다루어진 연구 수)뿐만 아니라, 질적차원(다루어진 연구내용)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하버마스의 인식론적 위치, 공론장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의 문제, 나아가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정립 등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철학 및 언어학, 법학, 정치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대다수의 하버마스 저작들은 국내에서도 번역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기에 하버마스의 논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하버마스를 다룬다는 것은 잘해야 본전, 못하면 그야말로 사방에서 못매를 얻어맞을 수 있는 전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버마스의 논의 가운데서 분명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부분이다. 하버마스의 막스 베버 합리성 및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소통행위이론)¹⁾에서 구체

1) 여기서는 Jürgen Habermas,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소통행위이론』) 서규환 외 4인 역, 의암출판, 1995 을 기초하여 작성한다. 참고로 서규환 외의 번역본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후에 나온 같은 책의 번역서들(장춘익 역, 나남출판, 2006)의 내용이 기존에서 다루어진 베버 부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었다. 2) 최근에 나온 번역서를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서규환 외의 책을 토대로 공부를 하였기에 논리전개상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번역서를 택했다. 한편 하버마스의 베버이해는 하버마스 전 저작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베버 합리화에 대한 논의로는 Jürgen Habermas,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한상진 편집, 나남, 1996, pp. 103-106;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 · 박영도 역, 나남, 2000, pp. 107-108; Jürgen Habermas,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하석용 · 이유

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베버이해는 베버를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베버를 전공으로 하는 이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다. 불편하다는 것이 단순히 막스 베버를 비판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하버마스의 베버 해석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박성환, 1992: 50-51; 윤병철, 1999: 82).

앞서 하버마스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해되는 현대 사회학자라 할 때, 하버마스의 베버이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오인된 하버마스의 베버이해가 정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실제 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국내만 하더라도 베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하버마스의 해석에 의존하여 이해하는 논의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윤평중, 1992: 206; 고희상, 1997; 전태국, 1997; 박종대, 2001; 박인철, 2004: 10-11; 윤진숙, 2007: 167-181; 하상복, 2009: 167). 학문 분야에서도 법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 걸쳐 하버마스의 베버이해가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다. 물론 하버마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비판적인 연구도 많이 있

선 옮김, 1993: pp. 55-120 등에서도 언급을 한다. 그러나 베버의 합리성에 대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는 하버마스의 『소통행위론』에서 다루어지기에 이것에 기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한 논평자 분께서는 하버마스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면상의 한계와 더불어 이 연구의 목적을 확대하는 것이기에 다음 연구를 위한 조언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2) 이러한 관점에서 베버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형식합리성”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한 연구로는, 윤진숙, 2007: 167-181; 베버 합리성을 ‘목적합리성’으로만 이해한 연구로는, 하상복, 2009: 167 참고. 한편 전태국(1997)은 베버가 목적합리성만을 지향했기에 하버마스의 베버비판에 동의를 한 바 있다(전태국, 1997: 472). 또한 마르쿠제(H. Marcuse)는 베버가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의 명철한 성공으로부터 나오는 경험과 지식의 진보된 수확화”, “삶의 방식으로서 그리고 과학 체계 내에서의 합리적 실험과 합리적 증명”,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편화된 관료조직체들의 탄생과 유지”(Marcuse, 1971: 135), “형식논리의 중요성”(Marcuse, 1971: 136)을 강조했다고 이해한다. 한편 고희상(1997)은 베버의 보편사적 문제설정을 근대서양적 원천(neuzeitlich-europäischen Ursprüngen), 즉 서양 합리주의(okzidentalen Rationalismus)로부터 현대, 혹은 현대성을 분리하지 않고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화의 핵심적인 모습은 자본주의적 경영과 관료제적 국가장치의 목적합리적 제도화에 있다고 바라본다(고호상, 1997: 47-49).

다(이기현, 1997: 172-173; 정호근, 2001: 137; 김창호, 2001: 196-197; 박인철, 2006: 20; 이현아, 2006, 2007). 그러나 이러한 하버마스의 비판 가운데서도 베버에 대한 오해를 지적한 전문적 연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하버마스를 비판한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베버 합리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해가 타당하다고 이 연구결과가 있었다(박인철, 2006: 10-11). 보다 심각한 상황은 하버마스의 베버이해가 그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논의는 베버를 '목적합리성'이라 치부해버린 결과로 나타난 비판적 생산물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비판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베버 비판에 대해 의심을 할 것인지에 따라 하버마스의 거대한 지적공헌 가운데 하나가 통째로 의심받는지 혹은 더욱 공고해질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마스의 베버이해를 재조명하는 것이야말로 베버 합리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한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이해를 제시하고(2장), 이후 베버의 합리성 해명을 밝히고자 한다(3장). 마지막으로 베버 합리성의 이념형적 이해의 필요성(4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하버마스의 막스 베버 합리성 이해

1) 목적합리성으로 귀결되는 베버 합리성 이해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그가 왜 막스 베버 논의를 필요로 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수많은 이론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꼭 막스 베버의 이론을 차용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 독일의 학문적 전통에 따라, 혹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

론 전통에서 입각하여 근대에 대한 재구성을 해보기 위해서 일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답은 바로 그의 해방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완성하는데 베버의 합리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베버 합리성을 그대로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베버 합리성을 해석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합리성(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 연구는 그의 해방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완성하는 도구이기에 그가 이 연구에서 다룬 바 있는 베버 합리성이론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었다(윤평중, 1992: 206).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베버 비판은 총괄적으로 그리고 구분지어 나타났다. '총괄적'이라 함은 베버논의가 들어 있는 대부분의 저작들을 놓고 해명했다는 것이며, '구분짓기'라 함은 베버 저작 자체가 가지는 몰일관성에 대해 하버마스 나름의 잣대를 세워 베버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막스 베버의 이해는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한다. 이는 다름 아닌 목적합리화된 합리성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베버의 근대사회이해는 목적합리화가 궁극적으로 관철되는 사회이다(Habermas, 1995: 180). 그 사이에서 서구적 합리화는 바로 '목적합리성'을 다른 어떤 사회보다 잘 개척하고 활용하였기에 보다 진보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즉 베버는 "유럽 밖에서는 왜 과학의 발전도, 예술의 발전도, 국가의 발전도, 경제의 발전도 서구에 고유한 합리화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Habermas, 1995: 193)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서구문화의 특유한 합리주의를 내놓았다. 하버마스는 베버의 수없이 많이 열거된 목적합리화를 설명하고자 ① 내용적으로 분류, ②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③ 문화의 고유성이나 보편적 의의를 가진 현상으로 분류한다(Habermas, 1995: 193).

우선 하버마스는 베버의 목적합리성을 '내용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서구에서 나타난 '형식합리성'을 증거물로 채택한다. 왜냐하면 베버가 해명한 형식합리성은 근대 유럽에서만 독

특하게 나타난 하나의 사회구조적 발생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합리성은 자체로서 '목적 실현'을 위한 최고도의 수단을 증명하기에 그의 목적합리성을 해명하는 주요한 단서라 바라봤다. 베버는 형식합리성에서 구현되는 합리성으로서 현대과학을 '합리화된 사회의 숙명적인 힘'(Habermas, 1995: 196)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버의 형식합리성에 따르면, 형식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보편화된 윤리와 원칙(Habermas, 1995: 198)들이 이전에 존재하거나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비체계적인 형제애적 윤리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었다(Habermas, 1995: 199). 이런 비형식적인 합리성의 윤리들이야말로 일반적인 형식합리성에 기초할 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버마스는 베버를 이해한다(Habermas, 1995: 199).

그러면서 근대 서구사회의 현대화를 맑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즉, 자본주의 경제 및 현대국가의 분화로 이해한다. 베버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경영이라 지칭한다(Habermas, 1995: 194). 그리고 문화적 합리화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경험적 지식의 확장, 예측능력의 확장, 경험적 경과에 대한 도구적·조직적 제어의 확장으로 이해한다(Habermas, 1995: 195). 그렇기에 베버 합리성에는 계산될 수 있는 척도로서의 형식적 합리성이 중요하게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합리화라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베버에게 상이한 가치체계들의 결정은 논증될 수도 합리적으로 동기화될 수도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의 내용을 고려한 가치 요청의 합리성이나 신앙심의 합리성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Habermas, 1995: 207). 그래서 막스 베버의 사회적 행위체계 혹은 '생활질서'는 관념과 이해관심 양자를 물질적 및 관념적 이해관심의 충족을 위한 합법적 계기를 질서지우는 방식으로 통합된다(Habermas, 1995: 224). 베버가 사회적 합리화의 최고단계로 기업가적 행위의 목적합리성을 해석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가 행위의 목적합리성의 기능적 요건들을 막스 베버는 도출한다. 이러한 요건들로는 a) 계획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에 편입된 노동력의 편에서 목적합리적인 행위정향, b) 자본주의적 기업에 있어 계산 가능한 경제적인 환경, 즉 재화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c) 이러한 계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와 국가 행정부, 그리고 그런 까닭에 d) 법을 제약하고 제 나름으로 목적합리화된 행위정향을 공공행정에 제도화하는 국가가 있다(Habermas, 1995: 255).”

다음으로 하버마스는 베버의 목적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합리성의 개념적인 방식’을 가정한다. 하버마스의 베버 목적합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해명하기 전에, 우선 하버마스 역시도 베버 합리성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에는 일차원적으로 공감한다(Habermas, 1995: 204). 그러나 하버마스는 여전히 베버의 다차원적 합리성을 풀 수 있는 핵심 고리로 ‘목적합리성’을 가정한다(Habermas, 1995: 204).

또한 하버마스는 베버의 ‘실천적 합리성’을 해명하면서 기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다(Habermas, 1995: 204). 그러나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복잡성의 증대만을 낳았다.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고 하지만, 베버가 제시한 여러 차원(개인행위 차원에서의 합리성, 세계관으로 나타는 합리성, 제도-조직으로서 나타나는 합리성)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서술했다. 이러한 차원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서술되고 있는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이해는 그가 베버를 정의하는 ‘목적합리성’이 어떤 차원에서 나타나는지를 모호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는 베버의 실천적 합리성을 해명하는데, 위에 열거된 3가지 차원을 모두 동원시키고 있다.

이렇듯 하버마스는 베버논의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차원의 합리성을 유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 베버는 합리성을 해명하면서 ① 각 차원 내에서도, ② 각 차원 간에서도 반목이 일어날 뿐만 아니

- 개인행위 행위차원에 기초한 합리성

“목적합리적 행위와 가치 합리적 행위의 연결은 전체로서 실천적 합리성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행위 유형을 생기게 한다(Habermas, 1995: 209).”

- 세계관에 기초한 합리성

“방법론적으로 합리적인 생활태도는 합리성에, 그리고 합리성의 상승에 겨냥된 복합적인 행위 유형을 확립하는 것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다. … 이러한 세계관들의 합리화는 상징체제들의 내적 관련에 결부된다(Habermas, 1995: 209-211).”

- 제도-조직으로 나타나는 합리성

“우리는 베버가 사회적 합리화의 이러한 현상들,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현대적 국가의 제도를 어떻게 그가 먼저 다른 현상들, 즉 동기적 합리화 및 문화적 합리화의 현상들을 설명하였던 개념으로 설명하는지를 볼 것이다(Habermas, 1995: 214-215).”

라, ③ 각 차원을 통일적으로 나타낼 단 하나의 합리성은 가정한 바 없다. 이렇듯 하버마스가 베버 합리성의 다른 차원들(개인행위 차원에서의 합리성, 세계관으로 나타는 합리성, 제도-조직으로서 나타나는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유기적인 연관 고리를 찾지 않은 채 베버 합리성을 ‘목적합리성’으로 규정할 점은 베버이해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하버마스는 베버의 합리성을 목적합리성으로 규정하기 위해 ‘문화의 고유성이나 보편적 의의를 가진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구 합리주의의 보편적 내용이 무엇이나와 연관된다. 하버마스는 베버가 제시한 서구-비서구 사이의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서구적 합리주의가 가지는 타당성을 주장한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점점 더 합리화되는 생활 영역들 사이의 긴장이 실제로 추상적인 가치척도 및 타당성 측면의 양립 불가능성에 소급되는지 혹은 단지 부분적인, 따라서 불균형적인 합리화에 소급되는지를 묻는 경험적인 문제로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자본주의 경제와 현대적 행정은 다른 생활 영역들을 대가로 하여 팽창하며, 구조상 도덕적·실천적인, 표현적인 합리성의 형식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은 경제적인 혹은 행정적인 합리성의 형식으로 강요된다. 언제나처럼 대답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가치영역들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의 부분 영역들이 형식적으로 합리화되는 타당성의 측면을 임의적인 가치 내용들과, 즉 역사적으로 바뀌는 특유한 가치의 범례들과 동일한 단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타당성 요구는 내적으로 긴장된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체계는 **서구적 합리주의의 형태 속에서 처음 등장 하였지만, 특정한 문화와 고유성을 넘어서 모든 문명인들에게 구속적인 일반적 타당성을 요청한다**(Habermas, 1995: 220) (강조는 논자).”

하버마스가 베버에게서 찾은 서구적 합리주의는 ‘목적합리성’이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베버의 종교사회학을 해명하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즉 하버마스는 베버의 종교사회학적 논의를 해명하면서 베버의 연구관점에 (목적)합리성과 유럽 중심주의의 합리성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바라본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베버의 다음과 같은 논의에 기초해 그의 종교사회학적 시도가 궁극적으로 ‘형식적-목적합리적’인 형태를 지향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특히 이런 유형의 종교사회학적 시도는 동시에 합리주의 자체의 유형학과 사회학에 기여해야 하며 또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시도는 실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형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어떤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 귀결을 어느 정도까지 실재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Habermas, 1995: 230).”

이렇듯 하버마스의 베버에 대한 기술은 언급한 3가지 관점 - (① 내용적으로 분류, ②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③ 문화의 고유성이나 보편적 의의를 가진 현상) - 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베버의

논의가 목적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하버마스는 막스 베버의 합리성이 전략의 올바른 선택, 기술의 적합한 사용, 체계의 합목적적 정돈(주어진 상황에서 정립된 목적에 따라)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전략의 선택, 기술의 사용, 체계의 정돈이 이루어지는 전체 사회적 관심 연관을 반성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재구성해 내지 못한다고까지 베버를 밀어붙인다. 더구나 베버가 주장한 합리성은 기술적 처리의 관계에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에 관한 것이든 사회에 관한 것이든 일종의 지배 행위를 요구한다. 그래서 목적 합리적 행위는 자신의 구조에 따라 통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생활 연관의 ‘합리화’는 이러한 합리성에 의해 정치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지배의 제도화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베버가 주장한 목적 합리적 행위 체계의 기술적 이성은 그 정치적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다(Habermas, 1993: 57-58)고 베버를 이해한다.

2)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해되는 베버 합리성 이해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화 이해에서 또 다른 한 측면은 ‘진화론적’ 이해이다. 하버마스의 이러한 해석은 막스 베버의 종교연구 및 세계관 발전에 기초해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하버마스는 텐부룩(F. H. Tenbruck)의 베버 연구에 기대어 진화론적 해석을 진행시킨다(Habermas, 1995: 231).

“텐부룩은 베버가 진보에 대한 법칙에 대해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종교들의 정류된 합리화의 테제를 가지고 **‘갑자기 종교 문제에서 동시대의 진화론의 진영에 선다’** 고 본다. 그(텐부룩)는 더욱이 베버가 종교적 세계관들 및 그 고유논리적인 발전에 대한 내적 타당성의 요구에 경험적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것들의 발전은 (베버의 견해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합리적인 강제에 따라야 한다. 즉 **종교의 생성은 합리성으로의 진보를 포괄해야 한다.** …… 그는 그것들의 의사-실재적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 대한 경험적 실상에서 취한다’ 그리고 끝으로 텐부룩은 베버가 모든 세계종교에 의해 전개된 “**학습과정**”에 관련지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한다. ‘종교들이 따라야 하는 합리적 강제는 신정론(神正論)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을 얻으려는 욕

구에서 생기며 종교의 발전단계는 이러한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점점 더 명시화되는 작업이다.’ (Habermas, 1995: 231-232) (강조는 논자)³⁾

그래서 하버마스는 베버 ‘세계관의 합리화’에서 모든 세계종교가 동일한 방향으로 수행된다고 이해한다(Habermas, 1995: 235).⁴⁾ 이렇게 종교의 생성이 합리화에 따른 방식으로 포괄될 수 있다고 보기에 베버가 설명한 바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발전적 도식으로 해명할 수 있는 ‘공리주의적’ 성격(Habermas, 1995: 265)을 지니게 된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3. 막스 베버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

1) 합리성의 다차원적 이해 요구

하버마스의 주장처럼 막스 베버의 합리성은 ‘목적합리성’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가? 하버마스가 베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질문은 베버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논의이다. 왜냐하면 막스 베버의 연구과제 중 ‘합리성’ 개념은 그의 모든 연구의 기초이자 목적이 되는 중심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베버는 합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방법론적 색깔을 분명히 한다. 베버의 연구 가운데 대표되는 비교 종교적 관점, 학문과 정치에 대한 논의, 사회적 행위논의 및 지배구조 내의 관료제 논의 등은 ‘합리성’이라는 관점이 왜 베버의 중심적 이념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연구주제들이다. 그렇기에 베버 합리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베버 전체 저작을 통해 총체적이고 그리고 구체화시켜 이해해야 할 대목이다. 이 말은 결국 베버의 전체 사고를 통해서만, 그리고

3) 여기서 다루어지는 텐부룩의 논의는 F. T. H. Tenbruck. 1975. *Das Werk Max Webers*. KZSS. 27. pp. 677-682의 내용이다.

4) 중요한 점은 베버에 대한 이해에서, 하버마스처럼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송두울, 1988: 141-147; Lukács, 1996: 672-673; Allen, 2010: 94).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베버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 연구에서는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에 대한 오해를 기준으로 베버 합리성의 다차원적 이해를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베버 합리성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하버마스가 어떠한 점에서 베버 합리성에 대해 오해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순서는 ① 베버 합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② 내용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비판, ③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④ 문화의 고유성이나 보편적 의의를 가진 현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코자 한다.

그러나 베버 합리성에 대한 관점을 해명하는데, 베버 합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이 논문에서 수행하기란 난해한 일기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2가지 기준에만 기초해 베버 합리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2가지 기준이라 함은 ① 베버 합리성이 가지는 복잡성과 다차원성, ②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베버 합리성 이해가 그것이다. 우선 국내에서 베버 합리성과 관련된 논의로서는 박종대(2001)와 배동인(1995)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베버 합리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물리적·심리적 강제가 없이 행해진 행위, 열정적 애정과 같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행위, 명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우연성이 개재되지 않는 행위, 명확히 의식하고 있는 목적의 달성을 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지식, 즉 경험적 규율의 기준에 따른 적

5) 합리성에 대해서는 베버 자신도 일관적인 정의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콜린스(Randall Collins, 1986)는 베버 합리성에 대한 용어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버 자신도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베버는 《경제와 사회》에서 “경제적 행위의 본질적인 합리성”이라 지칭한 바 있다. 또한 《세계종교의 사회심리》(The Social Psychology of the World Religions) 베버는 합리주의(rationalism)를 3가지로 구분했는데, ① 엄밀하고도 추상적 개념으로서 적용시킬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세계상, ② 실천적인 합목적적 수단으로서의 계산가능성, ③ 마법이나 기도를 포함하는 체계적 방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에서 베버는 “전적으로 합리주의의 발달만을 의미하는” 자본주의의 정신 개념에 대해 공격하면서 그는 “여기에 놓여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들 - 소명으로서의 개념과 같은 - 의 기원을 해명하는데” 관심이 있다고도 설명한다(Collins, 1986: 22).

절한 수단을 통하여 추구하는 행위 등이다(박종대, 2001: 172; 배동인, 1995: 37-38).” 또한 심윤중(1980)에 따르면 베버 합리성은 3가지 형태 - ① 경험과학적 합리성(Rationalität der empirischen Wissenschaften), ② 의미해석적 합리성(Rationalität in der Sinninterpretation), ③ 윤리적 합리성(Rationalität in der Ethik) - 으로 나타난다.⁶⁾

그러나 베버가 가정한 합리성은 구분할 수 있는 맥락의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거나 하나의 방향성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베버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계몽된 사회에서는 하나의 독특한 합리적 특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것과는 굉장한 차이를 가진다. 1. (우선 계몽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고화된 신뢰(Glaube)가 일상생활의 조건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불리어지기도 한다. 시가전차, 승강기, 화폐, 재판, 군대, 의학 등 원리상으로 합리적 본성을 지닌 것들이자, 합리적 인식이며, 인간이 인공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조종하게 된 것을 말한다. 2. 계몽된 사회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확고한 기대로서 존재하지만 규범이나 권력으로 이해되거나, 어떤 미개의 상황에서 마술사가 비합리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원리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행위가 명확하며, 상호거래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행위를 지향한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합리적인 질서에 의거한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의 특별한 이해가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합리적) 장치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기능들로 인식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제된다. 그렇기에 (평가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Weber, 1951: 473-474) (강조는 논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몽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특성은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도식적으로나마 계몽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기준들(계산하는 태도,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지향한다는 것을 서로 인지)은 그 사회

6) 그 외 베버 합리성에 대한 논의로는 이경원, 1990: 26-28참고.

자체의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다양한 평가기준들에 의해 달리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패스트푸드(fast food) 회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빠르게 생산·소비되고, 회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소비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도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목적 합리화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들에게는 관철될 수 없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사람의 건강에 기초할 때, 이는 목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평가하는 기준이나 입장에 따라 목적합리성의 정도는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사회 내에서 목적합리성이라는 의미도 얼마든지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리성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합리성은 그 사회의 특성이나 이것을 형성하는 가치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베버는 ‘합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합리화란 모든 문화권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생활영역에서 극단적으로 다르게 특성화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사(kulturgeschichtlichen)의 차이와 관련된 특징들은 다음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지?(Weber, 1988: 11-12) (강조는 논자).”

“인간은 오직 하나만의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종종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합리화(rationalisieren)는 극도로 차이가 나는 관점과 서로 다른 방향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성(Rationalität) 연구라는 것을 말이다》** 합리주의(Rationalismus)는 하나의 역사적 개념일 따름인데, 이 때 말할 수 있는 합리주의의 가치는 합리주의의 종결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지 의미할 뿐이다(Weber, 1988: 62) (강조는 논자).”

베버가 합리성을 범칙론적으로 도식화하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위에서 서도 나오다시피 ‘서로 다른 방향성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성’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칭되는 합리성을

일관되게 저술하는 것이 문제이며, 역사적 개념을 가진 개념이 법칙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잘못된 합리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다. 베버에게 사회과학의 모든 개념들은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 및 체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실재로서의 과학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실재에 대한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 현재적 형태에서 나타난 문화적 중요성의 특별한 형태를 이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 - 존재되어지지 않은 것’(So-und-nicht-anders-Geworden-Seins)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Weber, 1973: 170) (강조는 논자).”

그리고 베버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사회과학 인식의 객관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비추어주는 인식들과 현실의 상호작용이 가능할 때에만, 그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체계들이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변화에 따라 세계는 언제나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해나가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과학의 객관성은 현실과 적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과학적(kulturwissenschaftliche)연구들이 전문화된 시점에서, 문제입장의 정해진 소재는 후에 자신의 방법론적 원칙을 이행하고 나중에 개정된 소재들은 목적 그자체로서 관찰된다.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항구적인 인식 없이 하나의 마지막 가치 이념까지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에 오는 하나의 값진(새로운) 이념을 지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색채(Farbe)가 변한다. 속고를 거치지 않고 사용된 의미는 그 관점이 능력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며, 황혼(Dämmerung)속에서 가야할 길을 상실하게 된다. (그에 따라) 중대한 문화문제의 빛은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끌려간다. 그 후에, 과학은 현재입장과, 개념군들을 교체하며, 사상의 수준에 대한 조류에 대해 새로운 채비를 갖추게 된다. 과학은 자신의 방법적 능력에 대한 진행방향과 연구의의를 향해 (새로운) 성적을 끌어들이게 된다(Weber, 1922: 214) (강조는 논자).”

그렇기에 베버가 주장한 합리성에서 ‘목적합리화된 합리성’, ‘일관된 방향성’, ‘법칙론적 위치’를 찾으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하버마스는 베버가 제도적-경영에서 나타난 목적합리성에 몰입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의 베버이해에는 ‘기업가적 행위’만이 궁극적인 목적합리성의 담지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해석이야말로 오인된 베버이해이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 정신의 표준적 담지자는 개개의 부르주아가 아니라 ‘산업 중간층(industrial middle stratum)’ 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권위에 대항하여 일어난 농부(자유농 - yeomanry), 소부르주아(숙련공) 등이며, 과거 계층적으로 낮은 지위에서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힘쓴 구성원들이다(Hisao, 1976: 53). 그리고 산업 중간층들이 향유한 종교적 윤리는 기본적으로 형제애(Brotherly love)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기에 소명의 유용성은 도덕적인 용어로서만 측정될 수 있으며, 종교적 측면에서 상품 생산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위한다는 내적 소명에 기초해서만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할 정도의 사적 이익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Hisao, 1976: 69; Gerth, 1964: 308). 이에 대해 베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돈의 획득에만 기초한 자기중심적 이해추구, 그에 따른 완전한 사악함(unscrupulousness)의 보편적 지배는 과거 서구 기준으로 이해해 볼 때, 부르주아-자본가적 발전의 국가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모든 고용주들이 알고 있듯이 - 독일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는 - 이러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양심 부족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기본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작동되었다(Weber, 1930: 57) (강조는 논자).”

베버 ‘합리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하버마스가 제시한 각 차원들(개인 행위 차원에서의 합리성, 세계관으로 나타는 합리성, 제도-조직으로서

나타나는 합리성)간의 유기적 결합이 베버 자신의 논점에서는 흐릿하게 나타날 뿐이다. 왜냐하면 합리성 그 자체는 각 사회구조에 따라, 사회적인 적응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 그 자체의 의미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베버는 “이해 사회학에 대한 몇 가지 카테고리리에 관하여 (Ueber einige Kategorien der verstehenden Soziologie)”에서 목적합리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모든 사건경과의 진행이 어떤 규칙적인 관계와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행동 또한 그렇게 나타난다. 적어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인간 행동은 관계와 조화로서 이루어지기에, 인간행동의 경과를 이해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하나의 전형성을 포괄하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이다. 인간행동은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나타내지만, 경험적 타당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동기에 의존하면 다양한 상황들의 극단적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만 적어도) 외관상으로나마 인간행위의 경과와 결과를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늘 있어온 것은 아니다. 반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평범한 방법으로서, 인과적인 논의를 사용할 필요도 있다.(가능한 한 통제할 수 있는 한에서) 우선, 하나의 명확한 설명으로 유효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설명방식이 가능하다. 최대한도로 명백한 이것은 오로지 목적합리적 설명으로 가능하다. 목적합리적인 자기행위는 반드시 이하와 같다는 것을 가리킨다. 전적으로 주관적 지향인 목적 합리적 행위는 적절한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일의(一意)의 목적 형태를 뜻한다(Weber, 1951: 427-428) (강조는 논자).”

이럴 때 중요하게 작동되는 행위의 목적합리성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 시키고자 하는 최고도의 실현방식일 따름이며, 타자가 바라볼 때 ‘목적합리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하버마스의 주장처럼 이러한 목적합리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행위’를 지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된 목적합리적 행위는 근대

이전의 주술화된 시대와 구분되는 시대사적 분기점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마법적인 힘들 혹은 추종만을 갈구하는 신에 의해 주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모든 주술로부터 벗어난 근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객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체중심의 합리화가 등장한 것이다(전성우, 2002: 11-12).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주체의 합리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합리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세계관이나 혹은 제도에서 그와 유사한 합리성이 함께 공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합리화와 제도 혹은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합리화를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혹은 이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차원 내에도 수많은 합리적 투쟁들이 공존할 수 있다. 실제 베버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개인-개인 간의 가치투쟁’, ‘세계관-세계관들 사이의 투쟁’, ‘제도와 제도간의 투쟁’은 언제나 기준을 ‘나름의 합리성’으로 가정하고 투쟁했다.

이럴 때 역사적으로 몇몇 ‘특수한 제도(영역)’ 속에 속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우연한 기회에 ‘개인의 가치’와 ‘세계관의 가치’가 친화력(Wahlverwandschaft)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결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자본주의 정산’을 몇몇 지역에서 낳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하버마스의 주장 - 베버의 합리성 개념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의미와 목적을 공유 - 은 적절치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구문명이 가진 보편적 의의를 가진 현상으로 분류한 하버마스의 베버이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베버가 지칭한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베버의 ‘합리성의 비합리성’은 하버마스의 베버이해에서 나타난 ‘서구문명에 대한 보편성’의 비판인 동시에 그가 인식하고 있던 베버 사회학의 ‘진화론적 이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나의 용어 자체가 유명한 문구가 되어버린 그의 용어 ‘강철외투’(ein stahlhartes Gehäuse)는 그가 보여준 합리성의 비합리성을 극대화시켜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Weber, 1988: 203-204). 그렇기에 베버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것이 모든 문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많은 인과 고리 내 한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베버의 이론적 실천적인 가치기반은 근대 서구의 합리성이다. **하지만 그가 거듭해서 강조하였다시피 합리주의란 상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개념이며, 내부에 수많은 대립적 내용을 안고 있는 개념이다.** 모든 문화와 시대는 제 각기 독특하고 고유한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합리성과 비합리성이란 가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합리화란 삶의 특정한 분야나 방향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여러 종류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담아내는 개념이다. 나아가 제 각각의 생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법칙적인 발전들이 일사 분란한 평행선을 그으며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베버는 누누이 상기시키고 있다. … 따라서 베버의 합리화라는 개념을 거칠게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내적 및 외적인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세계에로 가꾸고 다듬어나가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박성환, 1997: 51) (강조는 논자).”

다시 말해서 베버 합리성은 단순한 하나의 일정한 방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구별은 한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것도 다른 관점에서는 몰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며, 같은 양식으로 한 관점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몰 합리적인 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에 관한 상대적이고 시각적인 생각이 암시하는 바는 분명하고도 중대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첫째, 합리성은 사물 자체 내에 원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합리성은 관계개념이다. 즉 어떤 특수한 관점에서 볼 때만 합리적(또는 비합

리적)일 수 있지, 그 자체로서는 결코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Brubaker, 1985: 49). 목적과 신념을 같이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합의 를 볼 수 있으나, 목적과 신념이 다르면,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한 판단도 달라진다. 베버에 따르면, 사회생활은 목적(특히 궁극적 목적)과 신념(특히 생의 방향을 정하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관한 영구의, 아니 더욱 강렬해지는 갈등으로(어떤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갈등으로) 얼룩지어져 있다. 그래서 베버에게서 ‘논리’와 ‘가치’의 문제는 그에게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했다. 논리를 ‘합리적’인 것으로, 가치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놓는다면, 베버는 이 두 가치를 모두 다루었다. 이렇듯 베버는 논리와 가치를 열린 질문으로 던졌다(Turner, 1984: 24).⁷⁾

베버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복잡다단하며, 또한 상대적이면서 관계적 개념을 내포한다는 점은 이미 베버뿐만 아니라, 베버 연구자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전성우, 1986: 5-6). 따라서 베버의 합리성을 한 방향만으로 해석하여 베버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이렇듯 베버의 합리성 개념은 그 자체로 세계를 해석하는(그리고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였다. 그래서 베버의 경우, 현실에서는 ‘가치합리적’ 성격과 ‘목적합리적’ 성격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바라보았다(Weber, 1997: 149). 따라서 베버는 이념형의 해석에서 방법론적 효용(합리성)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목적론적 도식에 근거

7) 뿐만 아니라 칼버그(Stephen Kalberg)에 따르면, 베버 합리성 유형은 모든 행위들 - 심지어 가장 미신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 에서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바라본다. 그래서 그는 베버의 한 가지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합리성은 방법론적 수행으로서만 적절할 뿐이라고 주장한다(Kalberg, 1980). 다시 말해서 베버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한 상충하는 판단의 화해불가능성과 융화불가능성의 필연적 결과인 사회생활의 조직 원리로서 합리성을 설명했을 뿐이다(Brubaker, 1985: 15). 나아가 뫼젠(Wolfgang J. Mommsen, 1989)은, 베버의 합리성이 현실 내에서 ‘가치 합리적 관점’과 ‘목적 합리적 관점’의 상호관계로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바라본다(Mommsen, 1989: 155).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는 과정 혹은 경험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주들로 제한시켰다.

2) 발견적 척도로서의 비교연구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방법론적 도구를 역사관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베버는 합리성의 정도가 사회나 역사의 진화만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베버는 『종교사회학 논문집 서언』에서, 합리성이 먼저 발발한 서구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서 ① 자본주의적 영리행위가 합리적으로 행워되는 곳에서는 자본계산을 기초하는 것이지, 투기적 목적이 아님을 설명하며, ② 자유노동의 합리적·자본주의적 경영조직의 발전, ③ 가계와 경영의 분리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합리적 부기의 의미, ④ 시민계급의 발생과 서구 시민의 개념, ⑤ 정확한 계산가능성에 의거한 기술적 요인, ⑥ 법률과 행정의 합리적 구조, ⑦ 근대경제의 에토스와 금욕적 프로테스탄트의 합리적 윤리의 발화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베버는 이러한 합리화의 방식이 결코 서구가 우월하여 그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와 자본주의 사이에는 독특한 친화성이 있음을 해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기에 서구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하버마스가 주장한 서구 우월의 진화론적 의미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참으로 행운과 ‘신의 은총’ 덕분에 서구에서 탄생했을 뿐인 근대를, 마치 자기들이 인류 문명의 진화에 유일한 주역으로서 창출한 듯이 오만을 부리는 서구인들(전성우, 2005: 17-18에서 재인용)”

그래서 베버는 비록 동양과 서구의 비교연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분석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제윤리란 있을 수 없다. 종교적인 혹은(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기타의 “내면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 라는 점에서 경제윤리는 물론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지 사회계층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각자의 종교가 지닌 현실윤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온 주도적 요소들을 규명해보고자 할 따름이다(Weber, 1991: 402) (강조는 논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이해의 수행의 모든 배경에는 겸손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 나타난 실제적인 원전(비석의 비문과 원본 문서)이 부분적(중국과 같은 특수한 경우)으로나마 매우 적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이 논문이 근본적인 결말은 일시적인 특징을 가질 뿐이며, 특히 아시아에 대한 것은 더욱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Weber, 1988: 12-13) (강조는 논자).”

베버 스스로 자신을 아마추어라고까지 낮추면서까지 그가 보고자 했던 세계종교에 대한 질문은 단선화된 진화론적 도식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베버가 살았던 당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 분야인 종교를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종교연구의 출발점에서 그가 선택한 기준이 서구종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베버의 문제의식에서 진화론적 의미가 가진 부분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베버가 가장 경계하는 관점일 뿐이었다. 종합하면, 베버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 종교적인 분석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가지는 결과를 통해 서구우월의 당연성을 제시하거나, 절대적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버에게 동-서양 비교연구는 서양의 이념적·제도적·물질적 기초를 둔 발견적 척도(a heuristic yardstick)에 중심을 두고, 이에 대응되는 동양의 그것과 비교 고찰하고자 했다.

4. 결론

살펴본 것처럼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이해는 구체적이지만 제한된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베버 합리성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류했

지만 오인된 방식으로 결론 내렸다. 하버마스의 베버 합리성 이해는 '목적 합리적', '진화론적' 방식으로 이해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는 하버마스의 베버이해일 따름이지, 이런 베버이해가 보편성을 획득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베버 합리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념형'적 이해의 필요성을 간략하게나마 제기해 봤다. '이념형'적 방법이야말로 복잡다단한 베버 합리성 이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룬 것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일부분이기에 방대한 하버마스 이해는 여전히 요원할 따름이다. 범위를 국내로 줄인다 하더라도 국내 하버마스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국내 이론적 논의에서 보다 활발한 관련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이다.

■ 참고문헌 ■

- 고호상. 1997. "하버마스의 현대성 주장에 대한 연구." 고려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창호. 2001.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 박성환. 1992. 『막스 베버의 문화사회학과 인간학』.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97. "역자서문." M. Weber. 『경제와 사회 1』. 문학과 지성사.
- 박인철. 2004. "생활세계와 의사소통." 『철학과 현상학연구』 31: 1-33.
- 박종대. 2001.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관한 연구." 『사회와 철학』 1: 169-205.
- 배동인 · 김용학 · 장덕진 · 이병혁 · 조은 · 김문조 · 차종천 · 전성우 · 양영진. 1995. "베버의 합리성 개념의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막스

-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민음사.
- 송두율. 1988. 『계몽과 해방』. 한길사.
- 심윤중. 1980. “자본주의, 합리성, 그리고 인간.” 『현상과 인식』 4(4): 167-181.
- 양중희·이윤희. 1995. “한국의 현대사회학이론 50년 진단과 전망.”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 윤병철. 1999. 『커뮤니케이션 사회학의 매듭』. 한울.
- 윤진숙. 2007.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67-181.
- 윤평중. 1992. “하버마스의 탈현대 논쟁의 철학적 전망.”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광사.
- 이경원. 1990. “막스 베버의 중국 사회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pp. 26-28.
- 이기현. 1997. “하버마스와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 이현아. 2006. “하버마스의 ‘문법적 인간’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고찰.” 『정치사상연구』 12(2): 101-121.
- _____. 2007.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1(4): 69-90.
- 전성우. 1986. “막스 베버의 근대자본주의 발생론 I.” 『韓國社會學』 20: 3-18.
- _____. 2002. “역자 서문”. M. Weber. 『탈 주술화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나남.
- _____. 2005. “근대성, 하나인가 여럿인가?: 막스 베버와의 가상 대담 2” 『사회와 이론』 6: 7-23.
- 전태국. 1997. 『지식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 정호근. 2001.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사회구성.” 『하버

- 마스의 사상: 주요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 하상복. 2009. 『푸코 & 하버마스 -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김영사.
- 루카치(G. Lukács). 1996. 『이성의 파괴Ⅱ』. 변상출 율김. 백의.
- 베버(M. Weber). 1991. 『막스 베버 선집』.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까치글방.
- _____. 1997. 『경제와 사회 1』. 박성환 역. 문학과 지성사
- 브루베이커(R. Brubaker). 1985. 『합리성의 한계 - 막스 베버의 사회도덕상』. 나제민 역. 법문사.
- 앨런(K. Allen). 2010. *Max Weber : a critical introduction*. 박인용 옮김.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삼인. pp. 105-114.
- 하버마스(J. Habermas). 1993.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하석용·이유선 옮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이성과 현실.
- _____. 1995. 『소통행위이론』. 서규환·심광섭·노진철·김기욱·최문규 역. 의암출판.
- _____. 1996.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한상진 편집. 나남.
- _____. 2000. 『사실성과 타당성』. 한상진·박영도 역. 나남.
- Collins, R. 1986. *Weberian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th, H. H. 1964. “Max Weber: A Man Under Stress.” *The Sociological Quarterly*. 5(4): 305-309.
- Hisao, Otsuka. 1976. *MAX WEBER ON THE SPIRIT OF CAPITALISM*.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 Kalberg, S. 1980. “Max Weber’s types of ration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5): 1145-1179.
- Marcuse, H. 1971.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sm”. *Max Weber and Sociology Today*. Harper & Row Publishers.
- Mommsen, W. J. 1989. *The Political and Social Theory of Max Web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nbruck, F. T. H. 1975. *Das Werk Max Webers*. KZSS.
- Turner, S. 1984. *Max Weber and the dispute over reason and value - A study in philosophy, ethics, and politics*. Routledge & Kegan Paul.
- Weber, M. 1922.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30(1921).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_____. 1951(1922). "Ueber einige Kategorien der verstehenden Soziologie."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73(1922).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 _____. 1988(1921).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us soziologie I*. J.C.B. Mohr(Paul Siebeck) Tübingen.

류성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받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턴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Understanding the Risk Society Theory: Government Policy Limitations during 2010 Foot-and-mouth Disease"(forthcoming), "막스 베버 공순(恭順) 사상으로 바라본 조선시대 남-여 관계에 대한 인식"(2010), "막스 베버의 정치관으로 바라본 2008년 촛불집회: 국가폭력의 정당성자원과 책임을 중심으로"(2010), "M. Weber의 지식사회학에 대한 일고찰: K. Marx와 K. Mannheim 지식사회학 비판을 중심으로"(2009,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2010. 11. 25. 접수; 2011. 4. 13. 수정; 2011. 5. 15. 채택]